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소식

제 4 호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승택 편집인 이재근 주소 제주시 중앙로14길 15-6 | 064)727-0617 | www.jejuregen.org

가까운 어느 날
다시 찾게 될 제주사람들의
휴식처 '탐동'

지면안내

2~3 원도심 이야기
제주도민의 생명수, '물' 이야기

4~7 원도심 탐구
도시재생기자단 취재 특집

8~9 인터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10~11 도시재생의 이해
도시재생 성공의 키 '공동체'

12~13 원도심 관찰일기
원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제주 바다, '탐동'

14 원도심의 밤
산지등대에서 만난 일몰

15~16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제주도민의 생명수 ‘물’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제주 문화의 독특함과
상징성

제주의 마을은 용천(涌泉:물이 솟아나는 샘)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달해 왔다. 대부분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다. 용천수란 지층 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표와 연결된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용출되는 물을 말한다. 용천수의 이용 역사는 곧 제주도의 물 이용역사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물이 아주 귀한 섬이었다. 지형적 특성으로 하천이나 강의 발달이 매우 빈약해 제주도의 물이용은 주로 용천수에 의존하였다. 용천수는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 식수원 뿐 아니라 생활용수, 축산용수, 농업용수 등 제주인의 생명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용천수는 동네 아낙네들의 대화의 장이 되는가 하면,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었던 곳이다.

용천수의 재발견

용천수를 둘러싸고 제주인들은 물을 옮기고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활용해왔다. 용천수를 운반하기 위한 작은 항아리인 물허벅, 강풍이 부는 날이나 원거리 운반을 위해 만든 대나무 바구니인 물구덕, 물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 저장하는 항아리인 물항, 물구덕을 등에 지고 내릴 때 수월하게 하기 위한 물팡 등 제주인들의 생활문화는 다양하다.

또 용천수의 구조를 보면 사회문화측면에서 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용천수의 흐름에 따라 4~5개로 영역을 구분하여 가장 상류는 마실 수 있는 물통으로 그 다음은 야채 등을 씻는 물통, 마지막 칸은 빨래하거나 먹을 감는 물통 등으로 구분하여 용천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요즘은 마을마다 해안도로가 개통되면서 용천수가 담수욕장, 물맛이 장소, 휴식 공간, 생태체험학습장 등 새로운 생태체험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용천수란 이름의 의미

용천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통물은 물이 바위틈에서 새어나오거나 땅속에서 솟아 흘러 물통이 형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물통을 만든 경우를 이 같이 부른다.

영물은 해안이나 하천가의 큰 바위(영덕) 밑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로 ‘영덕물’과 유사한 뜻을 지니고 있다.

큰물은 용출량이 많거나 수면적이 넓은 물 또는 마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물을 의미한다. 생이물은 용출량이 매우 적어 생이(새의 제주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졸졸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구멍물은 장마철 등 비가 많이 올 때에만 솟아나는 물을 의미하며, 할망물은 집에서 토신제를 지내거나 굿 등 정성을 드릴 때, 또는 산모가 젖이 잘 안 나올 때 이용하는 물로 제주의 토속 신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절물이란 절간이나 절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주로 절간에서 이용하는 용천수를 의미하며, 고망물은 암석의 틈이나 땅이 움푹 패인 지점의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우에 사용한다.

제주 읍성을 흐르는 생명수, 산지천

산지천은 제주시의 젓줄이자 생명수이다. 한라산 북사면 관음사 해발 720m에서 발원하여 길이는 13.2km에 이른다. 조선시대 제주성 축성과정에서 산지천은 성 밖에 두었으나 1555년 왜구가 침략하여 성을 포위하자 식수 조달이 어려워졌고 1565년, 식수 확보를 목적으로 성을 동쪽으로 물려쌓아서 산지천을 성 안으로 끌어들었다.

1599년 산지천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 남수구와 북수구 2개의 수구(水口)를 축조했다. 수로가 생기면서 사람과 물자 이동을 위해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인 홍예문도 설치됐다.

산지천 상류는 건천이지만 중상류에 가

1960년대 가락곶물



락꿇물, 하루에 금산물, 산지물, 지장깍물 등 용천수가 풍부해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인 1960년대 초까지 식수원으로 이용되었다. 산지천 하구는 영주십경의 하나인 ‘산포조어(山浦釣漁)’의 경승지로 명성이 자자했다.

가락꿇물이 솟아나던 샘, 가락천

연중 어떤 가뭄에도 마르는 일이 없었으며 늘 풍부한 물이 솟아 흘러 제주 성내의 식수원인 산지천 중상류의 중요한 수원지였다. 제주읍성 사람들에게 음용수(飲用水)를 공급했던 유서깊은 샘 터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맑은 물이 흘렀으나 상류지역의 대규모 건축공사로 수맥이 끊겼다고 전해진다. 가락천에서 조금 내려가면 형조판서를 지낸 충암 김정이 유배생활 중에 판 우물인 ‘판서정(判書井)’이 있었다.

보통 4월에서 11월까지는 수량이 많아 물이 흘렀고 12월에서 3월까지는 수량이 적었다.

산지물이 밀물 때 조수의 영향으로 짠물이 되어 이용에 불편을 주는데 반해, 가락꿇물은 항상 급수원이 되어 성안 한길골 동네를 중심으로 한 이도동과 삼도동 주민들이 주로 애용하였으며, 풍부한 수량으로 우기(雨期)인 여름철에는 주민

들이 목욕을 하거나 빨래를 하는 곳으로 이용하였다.

물 천지, 금산물 산물군

금산물은 ‘금산’ 밑에서 나는 물로 산깃물, 광대물, 지장샘 등 4개의 용천수가 솟아나 ‘물 천지’로 불렸다고 한다.

금산은 암벽으로 벼랑이 이루어져 사람들을 출입할 수 없게 한 데서 이름 붙었다고 전해지며 샘, 연못, 하천,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수려한 산천 풍경을 이루었으며 금산물 근처에 정자를 짓고 시를 짓거나 주연을 즐기기도 했다.

이후 1931년부터 제주항 축항공사를 하며 금산물이 매립되기 시작했다. 1955년에는 금산물 원천도 매립되었고 1957년에는 오늘날 상수도의 개념으로 착공하여 급수를 개시한 최초의 수원지이다. 1964년부터 사라봉 정수장을 거쳐 제주시 원도심 내의 식수로 공급되었고, 현재는 ‘제주 물 사랑 홍보관’이 위치해있다.

지장샘은 금산물 산물군에 포함되는 물로 옛날에 지장보살을 모셨던 당집 근처에서 나는 물이라 ‘지장샘’이라 불렀다고 한다. 수원지 내 여러 샘 중에 가장 동쪽에서 솟아나는 물로 지금은 ‘금산유허비’ 비석이 바로 앞에 있다. 물이 맑고

여름에는 얼음같이 차고 맛이 좋다고 한다. 지장샘 아래로 흐른 물이 고이는 곳을 지장깍물이라 불렀다. 지장깍물은 목욕이나 빨래할 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망애물(만안이물)

‘망애’의 뜻은 바다로 나간 사람을 애절하게 기다린다는 의미로 사라봉 북쪽 기슭에 있는 산지등대 인근의 절 사라사에 있는 용천수이다.

절에서 정성을 들일 때 사용했던 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물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다고 하는데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샘이 마르고 불공을 드리면 다시 솟아난다는 말이 전해진다.

질아랫물(소여물, 기러기물)

오리엔탈호텔 자리에 있었던 물로 ‘탐알’ 서쪽 바닷가에 있었던 우물이다. 여기에 작은 여가 있어 소여물이라고도 했다.

논각물

라마다 호텔로 진입하는 병문천 하수처리장에 있었다. 썰물 때는 물이 바다 밑으로 숨었다가 밀물 때 솟는 물로 무근성 사람들의 주 급수원이었다.

1900년대 산지천 하루 건입포 썰물 때의 전경



1960년대 산지물의 빨래터 풍경



[사진출처_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제주도에서 보낸 나의 유년시절

체 내리는 집의 기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골목마다 '보살집'이니 '체 내리는 집' 같은 간판들이 즐비하다. 빨간색 궁서체. 게다가 알 수 없는 절 모양의 기호까지. 나른한 오후, 적막한 거리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가득하다. 이 동네에는 왜 이리 보살들이 많지? 일종의 경건함과 당혹감을 숨길 수 없던 오랜만에 찾은 우리 동네, 원도심의 첫 인상이었다.



제주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체 내리는 집'에 대한 저마다의 추억이 있을 것이다. 그건 아마도 호랑이보다 무섭던 체 내리는 집 할머니와 파란 쓰레기통, 그것을 피해 도망가려던 필사적인 몸부림 정도로 기억되지 않을까. 나 역시 어려서부터 예민한 탓인지 체를 참 자주했다. 고기를 먹어도 체하고, 비가 와도 체하고, 차를 타도 체했다. 나의 유년시절을 점철했던 체와 체 내리는 집의 기억은 돌이켜보면 너무나 강렬했다.

엄마 손을 붙잡고 악다구니를 쓰던 나

결국 무서운 체 내리는 집 할머니께 눈물 속 빠지게 꾸지람을 듣고 신문지를 뒤집어쓴 채 몸을 맡길 수 밖에 없었드랬지. 입 속으로 들어오던 할머니의 차갑던 손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걸 보니 몸의 기억은 어쩌면 이리도 선명한지! 진이 빠진 채로 할머니가 쥐어주던 박카스 한 병을 손에 쥐고 체 내리는 집을 나

올 때면 마알간 햇살이 내리쬘었다. '아, 마침내 살았다!'

이런 것이 '제주다움'

각본을 쓰던 웹 드라마 234km에 '체 내리는 집 에피소드'를 넣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 육지 사람으로 이뤄졌던 우리 팀은 모두들 의아해했다. 체 내리는 집?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단 말이야? 로케이션 헌팅 당일. 마침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던 체 내리는 집을 방문한 우리 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디 산중에나 있을 법한 곳이 이렇게 도심 속에, 그것도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니! 호환마마보다 무섭던 방한 권의 그림들과 웬지 검붉었던 조명과 무심하게 놓여있는 쓰레기통 그리고 더 무심하게 앉아 계시던 체 내리는 집 할머니까지. 이런 그로테스크함, 체 내리는 집이 아니면 어디서 찾을 수 있으랴? 부랴부랴 사진을 찍고 동선을 체크하며 쾌재를 불렀다. 됐다, 이런 것이 '제주

다움'이지! 멋진 그림이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어진 촬영에서 체 내리는 집은 우리 드라마에서 감초 같은 장소이자 그 자체의 에피소드가 되었다.

귀신보다 무섭던 보살할머니

며칠 전 동네를 산책하던 중에 옆집 체 내리는 집 할머니를 뵈었다. 요즘 온 몸이 쭈신다며 받아보신 물리치료의 효과와 갖가지 민간요법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릴 적 귀신보다 무섭던 할머니들도 참 평범하고 귀여운 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달까? 여전히 우리 동네에는 보살집과 체 내리는 집이 한집 건너 한집씩 자리 잡고 있다. 어쩐지 촌스럽고 무섭게만 느껴지던 이 골목도 나의 다음 세대쯤 되면 볼 수 없는 풍경이란 생각에 어쩐지 마음 한 켠이 시큰해진다. 올해에도 우리 동네의 보살님들과 체 내리는 할머니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본다.

〈도시재생기자단 오수진〉

생산을 위한 예술 활동공간

#원도심 #예술공간 #오이

제주시 관덕로6길 14, 예술을 생산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 '오이'
 지난 2011년 12월 문을 처음 연 곳으로 연극뿐만 아니라 전시, 음악회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선보이는 특별한 공간이다.
 '오이'를 운영하고 있는 오상운 공동대표를 만나보았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연극교실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
 고 매주 수요일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연극대본을 읽어보는 리딩클럽이 열립
 니다. 5월부터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
 일까지 다양한 공연도 계획중입니다.



**Q. 구제주 원도심에서 대표님이 생각하
고 계신 '오이'는 어떤 공간인가요?**

A. 문화예술 공간 오이는 지속적으로
무대 공연이나 예술 창작물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소비 지향적인 문화예술 공간
이라기보다는 생산지향적인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오이라는 문화예술공간을 처음 열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저는 연극을 계속 해왔어요. 연극을
직업으로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많습니다. 연극을 하던 친구들이 모
여서 연극과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느껴 만든 예술 공간입니다.
지하는 극장이고 1층 카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Q. 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제주사회
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A. 관광산업이 제주사회를 먹여 살릴 것

같지만, 제주인의 삶에 행복감을 주는
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
금의 문화예술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행
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갖추어진 문화공간 인프라가
제주도에 생기면 과연 제주사회가 행복
해질까요? 개최하는 축제의 횟수나 문
화공간, 박물관의 개수는 많을 필요 없
다고 생각하고요. 제주의 정체성을 살
릴 수 있는 그리고 보호가 없으면 사라
져버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예산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주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각성되고 인지된, 천천히 가는
문화예술정책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기획
중인 무대가 있나요?**

A.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연극을 처음해보는 아마추어에 대한

**Q. 예술공간 오이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관람객인가요?**

A. 매번 다르긴 한데, 주로 20대부터
40대까지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제주
의 이야기나 사회의 부조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꾸준히 내놓고 있
어서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오이에 대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
세요. 500명 만들기 프로젝트도 계획
중입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A. 요즘 도시재생이 이슈인데요, 왜 도
시가 재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해답
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모든
도시를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자연
스러운 과정을 겪잖아요? 누구를 위한
도시를 재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기재단 전재현〉

토요일은 문화 공감의 날

제주국립박물관 ‘토요박물관 산책’

“지금, 나와, 놀아줘요~ 오늘, 그냥, 놀아줘요~ ♪”



〈 도시재생기재단 김지현 〉

지난 3월 25일, 제주국립박물관에서 달콤한 기타 연주와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미롭고 달콤한 목소리로 각종 음원 차트를 섭렵하고 인기 드라마 OST 러브콜을 받고 있는 혼성 2인조 어쿠스틱 밴드, 바닐라 어쿠스틱이다. 이들은 ‘한 번쯤은 니가 먼저’, ‘너와 나의 시간은’, ‘Blind date’, ‘대화가 필요해’ 등 히트곡들을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공연을 이어나갔다. 비가 온 뒤라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바닐라 어쿠스틱의 포근한 멜로디는 모든 추위를 녹여 버리는 듯 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며 그들의 음악을 감상했다.

흥겨운 박물관

제주에는 지역 특성상 가수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인기 있는 가수들을 보려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 부산 등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물관의 이런 무료 공연은 음악 공연에 목말라 있는 도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이다. 박물관에서의 미니 콘서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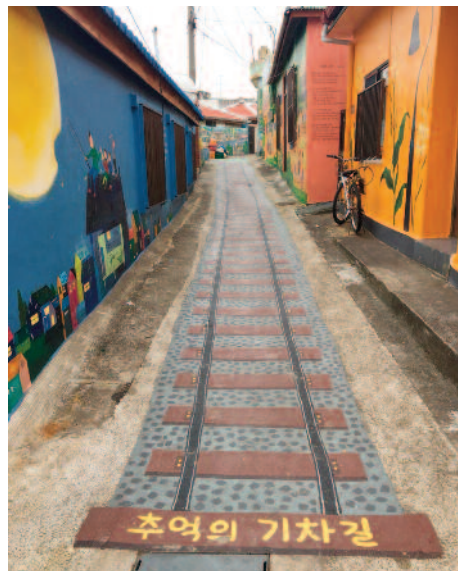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바닐라어쿠스틱의 공연은 제주국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토요박물관 산책’이라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관람객과 제주도민에게 가족 친화적인 문화 공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제주국립박물관에서 5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가 되면 고요했던 박물관을 음악회, 연극, 퍼포먼스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11일에 난타 공연으로 시작된 2017년 상반기 ‘토요박물관 산책’은 6월 2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를 이끌었던 성기완 교수의 강연, 한국형 자메이카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제주 밴드 사우스카니발, 창작인형극 <파란토끼 룰루> 등 올해 상반기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산뜻한 토요일 오후, 제주국립박물관에서 문화 산책을 떠나보는 것을 추천한다.

원도심의 숨은 길 찾기

봄이 온다, 벽화거리를 걸어보자

봄에 걷기 좋은 원도심 두맹이 골목, 남수각 하늘 길



봄이 오고 있다. 봄이 오면 유채꽃과 벚꽃을 생각하며 꽃길을 걸어야지 하는 생각이 앞설 것이다. 꽃길 말고도 원도심 내에 봄에 걸으면 좋은 벽화거리가 있어 두 곳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두맹이 골목**은 동초등학교 건너편으로 올라오면 두맹이복지회관이 있다. 그곳부터 두맹이 벽화거리는 시작된다. 소박한 골목길에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두맹이 골목은 2008년 제주공공미술사업에 당선되면서 예술가들의 작품 공간이 되었다. 작품들이 하나같이 집과 골목길과 어울린다. 어릴 적 말타기와 공을 갖고 놀던 모습 등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제주 바다 벽화 때문인지 제주의 모습을 물씬 느낄 수 있다.

두맹이 골목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의 말에 의하면 “벽화거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두 번째는 **남수각 하늘 길** 벽화거리다 (이하 남수각 하늘길). 동문시장 근처에 위치한 벽화거리로 두맹이 골목의 벽화보다는 화려한 모습을 담고 있다. 같은 벽화 거리지만 두맹이 골목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풍긴다. 남수각 하늘길은 추억의 기차길을 주제로 기차길 옆으로 다양한 벽화를 볼 수 있고 해녀와 다양한 동물 그림도 있다. 대부분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골목이어서 골목에 그려진 벽화의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추억의 기차길 그림들

그리고 군데군데 적혀 있는 제주어 속담을 읽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있다. 하지만 두맹이 골목과 마찬가지로 동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기 때문에 도난 위험이 있어서인지 대부분의 집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창문이 있는 집은 쇠창살이 설치되어있다. 이는 벽화거리라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두맹이 골목과 남수각 하늘길에 그려진

벽화를 보며 소박함과 그 동네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연인끼리 혹은 가족끼리 온다면 부담 없이 걸으면서 사진찍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고층빌딩과 자동차에 둘러싸여 있던 모습을 잠시 잊어버리고 날씨가 점점 좋아지는 요즘 원도심에 숨어있는 벽화 거리를 걸으면 어떨까 추천해본다.

〈도시재생기재단 김지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해 기본원칙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위원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도와 연결이 되는 중추적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해 주었으면 한다”며 주민중심의 사업을 하도록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밖에 평소 하 위원장이 갖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생각들을 물어보았다.

Q. 도시재생이 전국에 걸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관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도시재생은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이 전면철거에 의한 개발방식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기존 주민들이 힘을 합쳐 추진하고 현재 살고 있

는 주민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더욱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에 지역주민은 물론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Q. 지난 3월 14일,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의 의견청취가 이뤄졌는데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의회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반영 문제를 더욱 고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관덕정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표현이 명확했고, 도의회에서도 주민 의견수렴이 많이 부족하였다는 것, 주민의 합의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부족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것이 우려했습니다.

의회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주민과 협

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견제하고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의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Q. 오는 5월, 구)제주대학병원에 예술공간‘이야’가 개관예정입니다.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도 그랬고 높은 경쟁률 속에 입주작가들이 선발되었는데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A. 지금 삼도2동을 중심으로 몇 개의 부서가 구)제주대 병원의 예술공간 ‘이야’와 문화예술 거점사업, 원도심 재생사업의 중심지 등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도심 재생사업은 정주여건을 변화시켜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예술공간 이아라든가, 문화예술 거점사업에서의 입주작가 지원은 정주여건 변화이기 보다

는 예술이란 특정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공간 '이아'가 개관하면 이 역시 전문 전시,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 프로 예술인들에게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상가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과의 상가계약은 높은 임대료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상인들은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오히려 행정이 조성하게 되버렸다는 점 등에서 볼 때 행정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처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형평성있는 신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무조건 예산을 부으면 된다는 식의 행정정책들이 오히려 그 지역 원주민을 내몰리는 격으로 만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Q. 제주시 이도1동에 자리한 제주시민회관도 60년대 산물입니다. 이용객이 크게 줄었지만 그 존재감과 상징성은 여전히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건축으로 복합상가나 행복주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니 우려가 되는데요, 도시의 소중한 '기억'이 또 그렇게 사라지려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A. 시민회관은 지역문화의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1960~1980년대 제주시민들에게 공공집회 및 시민 문화 체육행사 등을 지원해 주었던 문화시설로서 제주문화 발전의 인프라 시설이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예술행사, 사회체육행사, 공공 및 일반행사까지 연간 340여회의 5만 여명이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마침 시민회관이 2016년 초 문화재청

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치발견이 되었고,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피해라는 선입관념에 의해 문화재 등록 반대라는 입장을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근거를 없애고, 해당 등록문화재의 외관 1/4정도 보존만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대적 문화 공존에 따른 도시재생의 필요 원인부터 살피고, 최소한의 개발 속에서 이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끝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제주형 도시재생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이라는 도시재생의 기본적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재생이어야 합니다. 단일 행정구역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이 단일 행정구역별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주시 원도심 5개동의 도시재생사업도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도심 살리기의 취지와 지역적 차원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5개동 지역주민간의 지역발전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설명회, 도시재생대학,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5개동 주민의 합의를 통한 전략사업이 추진되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도 중심이 아니고 센터에서 해당 지역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과 그 현장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센터가 하루 이틀 존재하다가 없어질 곳이 아니기에 10년~20년을 내다보면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도와 연결이 되는 중추적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재생기자단 윤영식 〉



도시재생 성공의 키 ‘공동체’

도시재생의 개념과 참여의 본질

‘도시재생-마을만들기-공동체’의 관계는 무엇인가?

도시재생이란 각 도시가 처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목표이다. 도시의 특성에 따라 방향 및 개념이 다르겠지만 도시재생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직면한 장·단기적 목표로 할 수 있다.

1934년 일제에 의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시작된 근대도시로의 모습, 한국전쟁을 겪고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현대의 도시적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고 번성하고 고밀화되고 또 쇠퇴의 시기도 함께 겪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발전의 패러다임 또한 전후복구, 산업을 위한 개발, 인간을 위한 개발, 자연과의 공존으로의 변화를 통해 도시 주체로서의 진정한 인간에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도시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가 주요한 패러

다임으로 대두되었다. 그 주민참여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으로 인식되고 정책화되는 시기에 있다.

다시 앞서의 이야기로 가서 도시재생이 목표라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가장 한국적인 방식이 ‘마을만들기’이고,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와 매개가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우리도시의 도시재생의 개념을 만들자.

법은 국가 전체적 도시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대응하여 만들어지지만 모든 도시의 특수한 상황을 담지 못한다. 즉 법률은 모든 도시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규정인 것이다.

또한 도시는 각 도시가 처한 현실과 문제가 상이하다. 설령 쇠퇴한 겉모습은 대동소이하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행태와 의식이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도시에 특수성에 기반한 도시재생의 개념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행정과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 도시의 모든 주체가 모여 제주의 여건과 도시발전방향, 행태, 습성, 자연 등을 고려한 ‘제주의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방향과 목표와 전략이 만들어져야지만 시행착오 없는 온전한 도시재생을 이루어 낼 수 있다.

함께 만드는 도시를 위해

발전적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주민, 행정, 전문가를 예로 각각의 주체가 범하는 일반적 오류와 이의 극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양한 전문적 인력풀

이젠 ‘전문가 파견’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많은 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며, 총괄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활동가 등의 용어로 전문가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 동 호 센터장

현장에서의 연구와 실행이 일반화된 때 문일 것이다.

이때의 전문가는 본인의 전공과 영역 이외의 분야에서는 일반인의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마을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 결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최상의 선택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점을 항상 인식하고 현장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기구나 행정에서는 마을에 즉시적으로 파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인력풀을 상시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풀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포럼 등의 방식으로 개인의 특수한 생각들을 다듬고 공유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독창적이거나 지역적인 아이디어

많은 도시 행정가들이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시행여부를 본인의 경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30년을 근무했는데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까지의 일반적 사업보다 더 독창적이거나 더 지역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도시재생이나 발전적 도시를 꿈꾸는 행정이라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적 주민

요즘 들어 주민중심, 주민주도, 주민, 주민, 주민... 참 많은 정책과 사업에서 주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주민참여를 갈망하던 우리가 바라던 현상이다.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그 주민은 ‘준비된 주민’이라는 것이다.

요구엔 책임이 따른다.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요구는 개인의 ‘기호’일 뿐인 것이다. 모두가 뛰고 있는 발전적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요구와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사회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우리의 교육체제와 사회에서 단기간 내 성숙한 주민참여는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서의 공동체를 위한 ‘실천적 인간으로서의 주민’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도시의 미래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역의 재생과 발전을 위해 행정의 정책과 대안들, 주요한 시설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또 수정하기 위한 조언과 적극적 의견개진과 함께 나의 역할과 공동체의 역할을 챙기고 스스로 해 나가야 할 주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 힘들고 벅차지만 우리의 바른 참여의 여하에 따라 우리와 다음세대가 살아가야 할 우리도시의 청사진이 그려짐을 명심하자.



원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제주 바다, '탐동' 우리 일상의 기록

아름다운 해안이 광장이 되고,
다시 제주사람들의 휴식처가 된다.

2017.4.1
토요일

🕒 14:00

- 여느 주말과 달리 한가한 탐동 해안 산책로, 잔뜩 흐린 뒤 맑게 갠 하늘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지나감



🕒 14:03

- 6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참 동안 이야기 나누더니 바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걸어감



🕒 15:44

- 푸드트럭 앞에는 빨강, 노랑,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가 있고 가족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어묵을 먹고 있음



🕒 15:30

- 키가 아주 큰 외국인 남자와 꽃무늬 원피스에 파란색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 한국 여성이 방파제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중임
- 그 옆으로 자전거를 탄 남자아이가 신기한 듯 쳐다보며 지나감



🕒 15:10

- 아빠에게 자전거를 배우고 있는 아이, 혹은 시나 넘어질까 옆에서 뒤에서 분주한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자전거 대여 장소에도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음



🕒 15:51

- 오늘 탐동 산책로에는 유난히 여성2분이 함께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서부두 끝에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혼자 걷고 있는 사람이 꽤 있음



🕒 16:00

- 아장아장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듯 한 아이와 함께 산책 나온 아빠는 손을 잡고 걸다가 멈춰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아이는 신이 난 듯 해맑게 웃고 있음



🕒 16:17

- 탐동 맥도날드 옆 놀이공원에도 사람이 별로 없음. 어린이와 함께 나온 부모님, 청소년들만 몇 명 보임



14:12



- 서부두 횃집 거리도 한산함
- 횃집 앞에는 할아버지 한분이 계단에 걸터앉아 신문을 보고 계심



14:30



- 날씨 좋은 주말이면 인파로 가득했던 탐동 광장에도 사람이 별로 없음
- 자전거 대여소 아저씨는 자전거를 정리하시며 오늘은 꽃 축제를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다하심



14:41



- 보드와 자전거를 든 남자아이 3명이 오더니 광장 바닥에 주저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딱지를 치고 있음

15:05



- 엄마와 함께 인라인을 타러 나온 아이, 처음이라 무서운지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열심히 연습중임



15:00



- 계단 옆 내리막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자전거를 타고 있음

14:53



- 아빠와 아들로 보이는 부자가 신난 표정으로 자전거 시험을 하고 있음
- 아빠와 딸은 커풀 자전거를 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16:30



- 2명의 건장한 청년이 농구를 하고 있음
- 덩크슛 금지라고 쓰여진 농구대를 보며 아쉬워함
- 탐동광장에는 늦은 오후가 되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임

2017.4.4
화요일

14:00



- 탐동 산책로 중간에 30여명의 사람들이 보임. 주황색 태왁과 망사리도 보이고, 가까이 가 보니 갯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팔고 있는 해녀분들임. 성인 팔뚝만한 홍해삼과 소리를 본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구경하고 있음.





산지등대에서 만난 일몰

해가 바다 속으로 숨어버리고, 내일을 향한 어둠이 서서히 짙어온다. 제주에서는 일몰로 유명한 곳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 오랜 역사 속에서도 인정하는 곳이 바로 사라봉의 일몰 사봉낙조(沙峯落照)이다.

“사람들은 대개 노을 사진을 찍을 때
해가 수평선 너머로 잠기면 카메라를 챙겨 돌아온다.
그러나 십오 분쯤 후의 노을은 더욱 장관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그 황홀한 아름다움은 단 이삼 분 안에 사라진다.”

- 김영갑 저서 “그 섬에 내가 있었네” p.133 -

그도 말했듯 십오 분쯤 후 노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해준다. 그리고 잠시 후 새로운 장관이 펼쳐진다.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는 고깃배, 하늘에서 수없이 나는 비행기, 제주항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배, 저 멀리 밤을 밝히고 있는 제주시내,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의 안전을 바라며 희망의 불빛을 내뿜는 산지등대노을의 환상에 젖었던 순간도 이러한 야경을 바라보다 보면 이내 잊고 만다.

단, 황홀한 일몰과 야경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선 날씨라는 운이 함께 해줘야 한다.

〈도시재생기자단 이금재〉



원도심 스토리 사진 전시회 해볼까요?

역사경관·문화예술 분야 주민협의체 모임 현장

지난 2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출범한 후 매주 다양한 분야의 모임 회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주민협의체인 역사경관, 문화예술, 주민정주, 지역경제, 도시인프라는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한 발굴과 논의를 위해 2~3개 분야가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 세부주민협의체도 칠성로상점가 및 무근성부녀회 등이 합류하며 힘을 얻고 있다.

4월 4일 저녁, 탐라문화광장의 옛 유성식품 2층에서 진행된 역사경관/문화예술 3차 모임 현장을 함께했다. 격주로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는 역사경관/문화예술 주민협의체는 2단계 세부주민협의체로 활동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인 '이야'의 운영을 앞두고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화예술은 전문가와 주민, 특히 지역 어르신들이 느끼는 이해의 간극이 큰 것 같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원도심의 장소성을 살려 주민들도 공감하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 건강 프로그램, 어린이 놀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여러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희망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함께 참여한 문화예술재단 안태호팀장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주시 원도심의 옛 사진을 모으자’, ‘이를 사진전으로 개최해 지역주민과 공유하자’, ‘사진 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기억과 스토리도 더하면 좋겠다’, ‘제주를 활용한 차별화된 전시회를 하자’ 등 한 아이터은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지자 풍부해졌다. 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틀을 통해 원도심의 스토리를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전시회 기획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주민과의 소통&협의 강화

도시재생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공론화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추진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내 상인, 주민,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기획하는 주민협의체 등 소모임과 원탁회의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유도하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폭을 넓혀 도시재

생의 전략과 바람직한 방법을 주민들과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3월 말부터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공유 등 교류 기회를 갖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도심 5개 동 주민센터와 무근성경로당, 건일동경로당, 네트워크고리, 비아아트 등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견함이 설치되었다.



“원도심, 주민이 직접 바꿔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대학 공통이론과정 개강

4월 1일,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과정인 ‘도시재생대학’이 개강했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도시재생에 관한 이론교육, 토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쌓고, 제주 원도심의 가치를 알아가며 도시재생 활성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대학은 공통이론 과정과 문제해결 과정으로 구성된다. 공통이론 과정은 도시재생의 이해, 역사, 문화, 예술, 사회적 경제 등 일반적인 내용을 다

루게 되며 4월 한 달간 진행된다.

공통이론 과정을 수료하면 직접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당초 주말반과 평일반 각각 2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참가신청이 몰리면서 최종 69명으로 조기 마감될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주말반 첫 강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김석운 위원장이 ‘제주 도시건축의 유전자’란 주제로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와 건축은 유형 문화이



고 도시의 성격을 보여주는 기본단위가 모체건축이다. 제주의 모체건축은 ‘안팎 거리 집’이다.”며 “제주 건축이 가지는 고유의 DNA는 내향성 집합, 작음, 옴팡, 유심, 성과 속, 절제의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일 진행된 평일반 첫 강의는 제주대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가 ‘원도심의 이해와 재생의 접근방안’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육지와 다른 제주의 역사, 문화가 오랜 시간 쌓여온 지역이 원도심이고 그것이 노형이나 연동과는 다른 원도심의 가치다. 도시재생은 공공자원을 활용해 지역, 역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해외 도시재생 사례들을 공유하며 이 속에서 제주민의 삶과 적합한 도시재생의 방법들을 찾아내자고 하였다.

김 교수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도시재생을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차근차근 진행한다. 제주 역시 최소 5년에서 10년 넘게 보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 도시재생이 주민이나 행정 모두에게 처음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과정에서 주민들이 더욱 치열하게 논의하며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4월말 수료식을 갖고 5월부터는 보다 전문화된 과정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는 문제해결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사당에서 봄을 느끼다

제주빌레앙상블의 풍경이 있는 음악회,
4·3미술제 ‘회향, 공동체와 예술의 길’ 등



지난 3월 26일, 제주빌레앙상블의 ‘풍경이 있는 음악회’가 열렸다. 가야금병창 윤지원씨의 연주는 향사당의 분위기를 한층 살렸고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4월 3일에는 제24회 4·3미술제 ‘회향, 공동체와 예술의 길’의 개막행사가 진행되었다. 오는 4월 30일까지



향사당 등 제주시 원도심 문화공간 13곳에서 특별전은 계속된다.

이어 4월 6일에는 바라문화예술연구소의 시민대학 프로그램의 첫 강연이 있었다. 일본 리즈메이칸 서승교수의 ‘동아시아의 평화와 평화주의’에 대한 강좌로 유익한 시간이 꾸러졌다.